

대한민국 택배 물류 창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유진로봇 고카트 AMR



도전 과제

한국의 한 물류 창고는 택배 주문 처리 창고 시설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창고 전체에서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카트를 수동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물류 창고에는
시간 지연과
안전 문제,
인력 부족 등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 지연입니다. 근로자들이 카트를 운반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문제입니다. 창고 모든 영역에서 수동 카트를 밀고 당기다 보니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인데요. 창고가 대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관리자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시간제 근로자인데,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회사는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솔루션

물류 관리팀은 여러 해결책을 평가하고 유진로봇 영업 담당자와의 회의를 거친 뒤 유진로봇의 고카트180 AMR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율 이동 플랫폼은 다양한 동적 환경과 물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카트를 시설에 통합하기 위해 철제 선반을 옮기고 재구성해야 했지만, 수동 카트 운송으로 인한 주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로봇은 총 10대의 고카트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문의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오더 픽킹 솔루션과 디지털 픽킹 시스템(DPS)을 통합할 것을 적극 제안했습니다.

“유진로봇이 DPS와 연동할 수 있도록 통합을 제안하고 설정해준 덕분에 전체 물류 창고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창고 관리자





결과



고카트는 회사의 창고 관리 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과 주문 선별 솔루션 및 DPS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어 지정된 지점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지정된 구역에 고정 작업자가 주문을 받아 이행하고 상품을 최종 포장 구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입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물류 창고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작업 시간이 30% 단축**되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대기 및 손실 시간이 감소**하여 작업 처리 과정이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카트를 옮기지 않아도 되고, **덜 번거로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 직원 유지율이 높아졌습니다.
- **고카트가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작업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인력난을 덜어주었습니다.



유진로봇 고카트 도입으로 인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창고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로봇 고카트 AMR을 통한 자동화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